

# [논평] 서울시의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 다자간 협약을 환영한다

발송일 | 2020. 9.25

수신인 | 서울시 및 환경부 출입 기자 및 사회부 기자

발송처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네트워크 단체들 / IPEN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  
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녹색연합/아이건  
강국민연대/iCOOP서울협의회(강남·강서·구로·관악·금천한우물·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서대문마포은평·서울·송파·양천·중랑배꽃)/여성환경연대/원진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교  
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초록교육연대/푸른광명21실천협의회/환경운동연합/환경  
정의)



관심을 가져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락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고금숙 활동가 ([kokumsook@Gmail.com](mailto:kokumsook@Gmail.com))

**2020년 9월 25일** 서울시는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납 함량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 이하로 낮고 안전성이 뛰어난 제품을 시가 관리하는 시설과 공공장소에 사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협약에는 5개 페인트 제조기업과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설공단, SH공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이는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안전환경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 안전한 제품을 제조하는

페인트 제조기업, 그리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서울시의 노력이 만나 거둔 소중한 결실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협약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임대·관리하는 공공주택 등의 내·외관에 국제기준을 준수한 0.009%(90ppm) 이하의 납이 함유된 페인트만 사용될 예정이다.**

전 세계 아동 중 50%인 8,570만 명의 어린이가 납 중독의 위험에 처해 있다. 납은 어린이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이상 행동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이다. 또한 성인의 경우 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는데, 해마다 674,000명이 사망한다. 전 세계 국가 중 70%가 전반적인 납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국내 납 규제는 어린이 제품의 경우 90ppm 이하, 어린이활동공간에는 600ppm 이하가 적용되고 있으나, 모든 용도의 페인트에 적용되는 납 규제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다.** 국제 페인트 납 함량 기준이 90ppm인 것에 비해 국내 페인트 납 규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럽과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디오피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이 국제 페인트 납 함량 기준인 90ppm을 국내 규제로 삼고 있다.

**서울시의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은 한국 사회를 납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서울시의 위상과 인구 밀도를 고려할 때 페인트 제조업체가 서울시 페인트와 그외의 페인트를 별개로 제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협약을 통해 한국 사회는 국제 납 함량 기준을 준수한 페인트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한걸음 앞서 나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서울시 협약은 자율협약이므로 국제 납 함량 기준을 적용한 국내 페인트 법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건강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끝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운영위원장 김신범

## 별첨: 협약식 사진

